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7년 1월 ~ 4월 4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일본, 햄·소시지, 개정, 소비자청, WHO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주요 키워드 :

일본, 햄·소시지, 개정, 소비자청, WHO 등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2015. 10. 27
WHO "햄, 소시지 등 가공육, 암유발 가능성 높아"

2015. 11. 25
WHO 발암물질 발표에 일본 '햄소시지 새 해선물' 불황 걱정

2017. 3. 8
일본 햄·소시지 시장, 업계 활성화 목표

핵심이슈 도출

일본 소비자청, 햄·소시지류 표기에 관한 공정 경쟁규약 및 시행 규칙 개정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일본 소비자청, 햄·소시지류 표기에 관한 공정 경쟁규약 및 시행 규칙 개정

지난 1월 30일 일본 소비자청(CAA)이 햄·소시지류 표기에 관한 공정 경쟁규약 및 시행 규칙 개정을 발표했다. 발표된 주요 내용은 두 가지이다. 첫째, 사업자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표기와 첨가물 표기 방법의 개정, 둘째, 경품표시법 개정에 따라 약관 본문에 규정된 법 조항 변경이 이에 해당된다. 일본 소비자청은 개정안을 발표한 2017년 1월 30일 발표와 동시에 시행을 명령했다. (다만, 2020년 3월 31일까지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햄·소시지류의 표기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으며, 해당 규칙은 이후 생산,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된다.)

지난 2015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소시지·햄·핫도그 등 가공육을 담배나 석면처럼 발암 위험성이 큰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붉은 고기의 섭취도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발표했다. 현재 일본은 햄·소시지류 표기에 대해 식품 위생법, JAS법, 부당 경품류 및 부당 표시 방지법 등을 통해 '무첨가', '저칼로리', '저염분' 등과 같은 문구를 금지하고 있으며, JAS 마크를 통해 품질 인증을 획득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 발표를 통해 자국민의 식품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일본 당국의 태도를 더욱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의 발표로 인해 일본 현지 가공육 제품 업계는 매출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형국이나 이를 계기로 저염 소시지나 제로 당분과 같은 '건강한' 소시지를 실현한 프리미엄 제품들을 선보이면서 여성들과 맞벌이 세대, 1인가구 등의 소비자들을 공략하는 새로운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지난 2015년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암연구소(IARC)가 가공육에 대해 1군 발암물질 분류로 발표했다. 발표된 보고서의 책임자인 IARC 쿠르트 스트라이프 박사는 "가공육 섭취가 직장암 발병율을 높이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가공육 섭취가 증가하고 있어 공중 보건 차원에서 암 발병 대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따라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함을 예방하기 위해 일본 당국 또한 발빠르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예로부터 통조림 강국으로 불리웠던 일본의 식품기업들은 건강한 프리미엄 통조림 햄 제품 등을 출시하여 이에 대응하고 있는 상태다. 우리 기업들 또한 이번 일본 소비자청이 발표한 개정안의 내용을 꼼꼼히 파악하여 건강한 소시지를 실현한 프리미엄 제품들을 수출할 경우 일본 현지 제품들과 경쟁할 수 있는 제품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보고서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임을 밝혀야 합니다.